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5)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예배' “ —예배, 하나님 영광주권 위한 것—

■ 이현웅 교수(한일장신대학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분께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분께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장로(개혁)교회 예배를 연구한 신학자 휴스 올리펀트 올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분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자리한다고 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위치도 번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함으로써 참 인간일 수 있고, 온 피조물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오늘의 교회,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과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가 가장자리로 밀려난 채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중심을 잃고 영적 거리를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예배하는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 29:1-2)"
우리는 장로교 신앙의 근본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잘 알고 있다. 요리문답의 제1문항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늘 드리는 바로 그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늘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이다.

장로교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각 교회나 교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형식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교파)의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의 예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장로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계교회의 일원이면서 한편 장로교회로서의 예배에 대한 정신과 고유한 원리를 갖고 있다.

먼저 장로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주시오, 우리 인간은 그 분 앞에 연약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마땅히 그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께만 예배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들이 만든 의식과 떠드는 소리만 넘치고 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기쁨을 위한 시간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장로교회는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예배일 때,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장로교 예배는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인 칼뱅은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의 예배 형식의 근거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두었다. 그래서 '말씀', '교제(봉헌)', '성찬', '기도를 예배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장로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모든 예배의 정신과 원리를 제공하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장로교 예배는 '설교'를 예배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는 개신교 전통에 따라 예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교 설교자들은 예배를 위한 준비와 함께 설교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예배 현장에서는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앞면에서 계속

넷째로 장로교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요시한다.
기독교 예배는 성령의 사역(work)이다. 즉 인간들에 의해 준비된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신령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예배인도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예배의 원동력임을 알고, 예배 시간을 통해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

예배, 교회 존재의 근거

신학교에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교회가 1년 구제와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령 교회가 1년 이상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 1년 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예배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근간이요, 개인의 신앙을 보존케 하는 토대가 된다. 교회는 예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계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장로교회와 목회자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교회는 이 일을 가장 우선으로 알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다. 예배와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바쁘게 따라 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목회자는 예배와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과 함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선교, 교육, 봉사, 행정, 상담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는 예배의 문제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로 이해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예배 현장마다 영적 생동력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예배 현장은 어떠한가?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기독교보 제3058호 2016년9월10일(토)에서 발췌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재라
교육목사 임규현 정대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름주현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바캉전(카자흐스탄) 스프로모바로이, 조남혜, (헝가리देश),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사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서광종이성임(인도네시아), 손신일-민배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미시아), 김인사-원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민규(우크라이나), 허창남-현미순(일본, 김년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혼쿠야 망, 탕,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엘, 레이, 난, 쌍, 샌다, 사우, 카유, 랑, 흐라, 래비, 벤, 바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팔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비쓰 이경엽, 알로통 비사누반도, 보리스토프, 린롬 수원철 방달라देश, 김태식 윤영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산교)		

제27권	제9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7년	2월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현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 녹 14:25~35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눅 14:26).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조건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판단의 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공생애 3년째 되시던 해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9:23)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열 두 사도를 대표하여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현대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he must deny himself),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take up his cross daily), 나를 따를 것(follow me)이라는 세 자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2.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난” 입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만겠느냐” (요 3:12).

예수님의 생애를 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보좌에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고난의 복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맺는 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십니다.

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 믿고 의지합니다.

②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나의 영혼 속에 사명감과 진리를 위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③ 날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영혼 속에 사명감과 진리를 위한 십자가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과 밖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분명한 선택을 하므로 고난의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박두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이관규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임상현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5: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4(시 148)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9(4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빌 4:10-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주안에 있어라 김순권 목사
* 찬 송 Hymn	370(45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7:3-6 인 도 자
찬 송	15(55) 다 함 께
기 도	백승갑 집사
성 경	살전 2: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 설 교 자
* 찬 송	455(507)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김양숙 권사
성 경	눅 4: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시름을 이기는 믿음”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연박수강

설 교 조원영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7)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minster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입

1. 교구총회 개최(교구목사,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 26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 알 림

1. 102호 예배

청소년 예배(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시-10시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락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4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3.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4. 김순권 목사 소개

2001년 10월 목양문학상을 수상하신 기독교문인협회 이사이시며 경천교회(관악노회) 원로목사이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88회기(2003년도) 총회장을 역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수요예배
908명	214명	145명	116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2월19일	전주이월	10,021,760		
"	현금 입금	44,217,800		십일조 :24,867,500 주일 :4,501,100 감사 :14,132,000 교회학교 :127,200 기타 :590,000
"	찬양운영,사례비,말씀봉사비		1,950,000	찬양대 지휘자 및 특기자 사례 외
"	교회학교운영비		1,614,000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외
"	출 판 비		300,000	순례자 발행
"	소모품비		189,500	본당 2층 찬양대석 TV 브라켓 외
"	교통통신비		6,229,980	교회 문자전송료 외
"	차량유지비		1,010,300	부교역자 주유비
"	복리후생비		55,500	당직자 식대 외
"	수도광열비		1,141,360	교회 상,수도료 외
"	환경유지비		884,000	음식물 쓰레기 봉투 외
"	수선유지비		633,900	사택관리 외
	합 계	54,239,560	14,008,540	잔 액 40,231,020

* 2017년 1/4분기 선교비 : 120,388,320 원, 농어촌교회후원금 ; 20,900,000 원
군선교비 : 19,800,000원 수입(현금)부족으로 집행하지 못 함.

자리다툼

사람마다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부른다. 제자리를 지키기노 힘이 들지만 제자리를 마련키란 더욱 어렵다. 집을 짓되 좋은 터에, 결혼은 명문가에, 취 직은 높은 자리에 하려고 아귀다툼이다. 죽은 후에도 명당을 찾고 이름이 남을 자리를 원한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곁에 앉으려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였던 것을 폭로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자를 성공자라 부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 구해야 할 가장 좋은 자리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여야 하고 칭찬과 영광자리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를 택해야 할 것이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